



제목	The Essence of Rumi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Arcturus Publishing Limited
발행일	2017. 5. 15.
저자	John Baldock
출판도시	London
페이지수	240
ISBN 또는 ISSN	978-1784284039

내용 요약

이 책의 서문에서는 루미를 수피 시인의 대가이자 이야기꾼 중의 이야기꾼으로 소개하면서 『마스나위』 제3권에 나오는 코끼리 이야기를 먼저 들려준다. 감캉한 방에 코끼리가 한 마리 들어 있다. 너무 어두워서 코끼리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만져보고 코끼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만지는 부위가 다르고, 설령 그 부위가 같다고 하더라도 느낌이 제 각각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진 부위에 대해 아무리 정확하게 설명을 해도 그것이 코끼리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 책의 저자 존 발독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루미에게 접근하는 방식과 그를 이해하고 그의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및 태도를 문제 삼는다. 루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감캉한 방에 있는 코끼리를 손바닥으로 더듬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루미에 관한 일부만으로 루미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손바닥의 느낌만으로 코끼리의 본질을 규명해서도 안 된다. 결국 현상과 본질 간의 불일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책의 저자는 루미가 대립적인 이원성의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본다.

루미를 코끼리 전체로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의 내용을 총10개 장으로 구성한다. 제1장 루미와 역사에서는 13세기 유럽과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영적 상태를 개관하고, 제2장 루미의 삶에서는 루미의 일생과 저작을 소개하며, 제3장 루미와 이슬람에서는 루미의 이슬람 배경을 설명한다. 제4장 루미와 수피의 길에서는 루미의 수피즘을, 제5장 루미의 인물 캐스팅에서는 루미가 자주 언급하는 인물들을, 제6장에서는 루미와 상징주의를, 제7장에서는 루미의 주제들을, 그리고 제8, 9, 10장에서는 각각 산문집 『피히 마 피히』 단문, 『마스나위』 이야기, 『타브리즈 샴시 시집』 송가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을 총망라해 놓았다.